



리사조
진봉창

한국체육대학보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275호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http://news.knsu.ac.kr

5 스포츠
'부상' 을 딛고 '부상' 할 체육계

6~7 우리대학 우리선수
울려라 애국가, 들어라 아시아

8 문화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목 선정 논란

12 특집
제4회 항저우 패러게임 토크보기

한국체대, 항저우 출격 준비 완료

1986

김진호

1990

염동철

1994

정광채

1998

이영선

2002

백진국

2006

남현희

2010

홍해솔

2014

양학선

2018

전웅태

2022

???



Who will be the next Asian Games star?

D-5,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회는 다가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16일간 열리며 45개국에서 12,000여 명이 넘는 선수들이 항저우로 향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2020 도쿄 하계 올림픽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했고, 이전 대회 이후 5년 만에 개최한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이번 아시안게임.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선수들도 항저우 하늘에 태극기를 걸어 올릴 준비를 모두 마쳤다. 우리 학교 학우들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낼까? 학보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선수들의 든든한 조력자

한국체대 선수들이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학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한다. 선수 훈련 업무를 총괄하는 김진혜 훈련학생처장은 "아시안게임은 출전 선수와 학교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회다."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 그 이유로 "학생은 병역 및 연금 문제가 달린 대회이고, 학교 측에서는 '한국체육대학교'의 이름으로 국위선양에 앞장설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최고경영자과정(WPTM)에서 아시안게임 메달 격려금을 계획했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김 처장은 문원재 총장과 함께 항저우로 떠나 선수들을 직접 응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이번 아시안게임 기간에 선수단 현장 격려를 비롯해 대한민국 포함 각국 체육계 관계자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한국체대 선수들의 운동 환경을 개선하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컨디션 조절과 현지 적응을 통해 예전 경기부터 쉽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본인을 알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하필 개최국이 '중국'이라니

자국에서 경기를 치르는 대회 개최국 선수단이 타국 선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심판 판정을 받는 것을 일컬어 '홈 쿨'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열리는 대회는 이런 논란을 한 번도 피해 간 적이 없다. 올림픽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특히 더 심했다. 지난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마찬가지였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중국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이 빈번하게 나왔고,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분노했다.

중국은 스포츠 관습이 매우 많은 나라 중 하나다. 그들은 작은 동네에서 열리는 축구 대회에도 만원 관중을 채울 정도로 스포츠에 열광한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은 경기 티켓을 각국 구매대행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도록 했고, 그 중목 또한 매우 적다.

이렇게 중국인들이 가득 차게 될 경기장, 우리나라 대표팀은 그런 환경을 대비하는 훈련을 따로 진행하고 있을까? 대한체육회 훈련기획부 장세웅 주무는 "개최국이 중국이라는 특성과 경기장에 우려 퍼질 많은 관중의 소음은 인지하고 있다. 양궁과 같이 외부 환경에 민감한 종목들에게는 강화 훈련을 권고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 주무는 훈련의 최종 결정권 자체는 해당 종목의 감독에게 있다며 각 대표팀에서 경기장 환경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날개를 펼쳐 보일 시간

이번 아시안게임과 지난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개막일 차이는 58일이다. 두 대회를 모두 출전한 선수들은 체력적인 부담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뒀던 교수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다. 평소 훈련할 때와 같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 길었던 여정에 기분 좋은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란다.

원지호 기자 jiho305406@naver.com

우리 대학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① 성승민, 근대5종 메달 획득에 앞장설 수 있을까?

'근대5종'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선수는 도쿄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전웅태(38회 졸업)다. 하지만 최근 성승민 학우(체육 근대5종 23)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그는 지난 5월 불가리아에서 열린 근대5종 월드컵에서 개인전 은메달을 따내며 본인의 이름을 알렸다. 근대5종 대표팀 선수단은 '국가대표 미디어데이'에서 "중국의 텃세에도 굴하지 않고 전 종목을 석권하겠다."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성 학우가 그 선봉장이 될 수 있을까.

② 김진호 - 김문정의 뒤를 이을 임시현

한국 양궁의 샛별로 떠오른 임시현 학우(체육 양궁 22)도 있다. 임 학우는 김진호 교수(1978, 1982, 1986 AG 금메달), 김문정 조교(2002 AG 금메달)로 이어지는 한국체대 여자 양궁 계보의 뒤를 이을 선수로 언론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번 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한 그는 이번 양궁 월드컵 2차와 3차 대회에서도 연속으로 2관왕을 달성하며 꾸준한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는 대회를 앞둔 소감으로 "주변에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대회에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지켜보자.



③ 류성현은 어디에?

현재 우리 학교 체조부에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출신 류성현(체육 체조 21) 학우도 있다. 그러나 류 학우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않는다. 그가 향하는 곳은 바로 세계선수권이다. 이번 9월 30일부터 벨기에에서 열리는 세계체조선수권대회는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중요한 대회다. 그런데 아시안게임과 대회 일정이 겹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에 체조 대표팀은 두 개의 선수단을 만들었고, 류 학우는 더 큰 무대를 향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 세계선수권에 출전하게 됐다. 그는 "솔직하게 아시안게임을 더 뛰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아시안게임에서 본인의 메달 가능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현재 상황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는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오겠다."라고 대회를 앞둔 각오를 밝혔다.

④ 우리도 아시안게임에 나가요

체육학과 선수들뿐만 아니라 경기지도학과에서도 5명의 선수가 항저우로 떠난다. 스포츠클라이밍, 세팍타크로, 스케이트보드 등 기존에는 우리 대학에서 출전하지 않던 종목들이다. 그들 중 스케이트보드 파크 종목에 출전하는 한재진 학우(경기지도 23)는 이전 아시안게임에서 4위를 기록했던 실력자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도 1위로 통과한 그가 항저우에서는 포디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대면 전환 후 일주일, 학생들의 반응은?

본관 1,2층 폐쇄 ... “이게 학교야, 공사장이야?”



12일 아침, 좁은 도로에 포크레인과 자동차가 지나가 학우들이 통행 불편을 겪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아침, 조교가 학우들의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대면 강의 전환 후, 일주일의 지났다. 지난 달 8일 학교 측은 공사를 이유로 비대면 강의 3주 진행을 발표했다. 9월 9일 학교 측은 11일 ‘전면 대면 전환’을 공지했다. 그러나 안 전상의 문제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이 존재했다.

본관 외부는 여전히 자재들이 넘친다. 본관 앞 도로, 맨홀 뚜껑 등 외부 공사가 한창이다. 그리고 본관 1, 2층 공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본관 정문을 통한 출입은 불가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 수업이 진행될 시 학생들이 가장 우려한 것은 안전이었다. 이에 대해 시설총괄팀 이인재 주무관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본관 외부에는 가림막을 설치했기에 부산물에 맞을 일은 없다.”라며 안전 우려를 일축했다.

학교 측은 각 조교에게 본관 외부 통행로 주변 이동 통제를 부탁했다. 본관 공사장을 학생들이 가로지르지 못하도록 지도하라는 뜻이었다. 8시 40분부터 9시까지 통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포크레인과 자동차가 지나갈 때는 통제가 어려웠다.

그렇다면 학우들은 진행 중인 공사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A 학우는 먼지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필승관 통행로가 아닌 본관 좌측으로 건물에 들어간다. 이때 합동강의실 및 1층이 공사 중이라 먼지가 매우 많다. 그리고 연속 강의를 들을 때면 수업을 마쳤을 때 목이 칼칼하다. 나 말고 다른 학우도 같은 증상을 말했다.”라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B 학우는 소음이 수업에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강의

시간표를 확인해 소음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소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특히, 본관 301호와 402호에서 큰 소음을 들었다는 학우의 제보도 있었다. 심지어 체육학과관 205호에서도 소음이 들렸다. 또, C 학우는 “비대면 수업 연장이 아닌 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돼서 공사가 마무리된 줄 알았다. 그러나 본관을 보자마자 학교가 아니라 공사장인 것처럼 느껴졌다.”라며 당황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D 학우는 “방학이 끝나 오랜만에 동기들도 만나서 좋다. 물론 임시통행로 사용이 불편하지만, 비대면 수업을 연장할 필요는 없었던 거 같다.”라며 대면 수업 전환을 반기는 의견도 있었다.

백종훈 수습기자 3605a@naver.com

신축도서관 학과방 신설 확정

9월 12일 제3차 공간조정위원회 통해 가결



전 방송국실을 포함해 7개의 학과방이 학우들을 기다리고 있다.

학과방 신설이 확정됐다. 신축도서관 4층 동아리방 및 방송국실 공간조정안이 12일 제3차 공간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6개의 동아리방과 방송국실이 7개 학과방으로 활용되며, 방송국은 회의실로 이전한다.

신축도서관 4층 공간 조정은 ‘라운’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임기성) 주도로 진행됐다. 신축도서관 4층 공간 활용과 관련한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 전체 1,059명의 참여자 중 68.5%(725명)의 학우가 학과방으로 사용하기 희망했다. 훈련학생처는 8월 16일 공조위에 해당 안전 상정을 마쳤다.

임기성(사회체육 19) 총학생회장은 “학생의견이 반영돼 교내 공간의 용도가 변경됐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우가 언제든지 찾아와 편히 쉴 수 있는 복지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 10개 학과 중 신축도서관에 들어올 학과는 일곱 학과뿐이다. 해당 학과는 총학생회장 및 각 학과 학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박서진 부장기자 psj3158gh@naver.com

권봉안 명예교수, 해외 도피 끝 자진 귀국... 결국 자격 박탈

지난 6일 수요일,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는 대학 인사위원회(위원장 교무처장 조준호)의 동의를 얻어 권봉안 전 교수의 ‘명예교수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1984년부터 교수 생활을 시작한 권봉안 전 명예교수는 2020년 2월 29일 정년퇴직까지 약 36년간 한국체대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직 후 2020년 3월 1일, 추천위원회의 결정으로 명예교수로 임명됐으며 황조근정훈장까지 받는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학계에 두터운 인맥이 있던 권 교수는 본인의 위치를 이용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대학원장을 역임하던 2018년과 2019년에는 그 강도가 더욱 세졌다.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천만 원 단위까지 ‘논문 통과 비용’과 같은 명목을 내세워 돈을 챙겼다. 해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도피했다. 한순간에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된 그는 더 이상 해

외에서 체류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 7월, 자진 입국 후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본교 규정에 따라 현재 명예교수 추천위원장으로 있는 조준호 교무처장은 이번 자격 박탈의 근거로 명예교수 규정 제6조(자격상실)를 들었다. 해당 조항에는 “명예교수가 학교의 명예 또는 명예교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을 때 총장은 본교 대학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다.

이후 기자는 2019년 ‘대학원 논문 바꿔치기’ 논란 당시 대학원장으로서 그 중심에 있었으나 결국 명예교수로 임된 근거 및 자료, 권 교수의 뇌물 수수 혐의 조사 결과 등을 추가로 질문했다. 그러나 조준호 교무처장은 해당 내용에 “(내가) 교무처장이 되기 전 있던 일이라 자세한 경황을 알지 못한다.”라며 말을 아꼈다.

원지호 기자 jho305406@naver.com

5인의 신임 교수를 환영합니다



지난 8월 21일, 좌측부터 김병수 교수, 오혜리 교수, 문원재 총장, 전해상 교수, 안현석 교수가 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우섭 교수는 9월에 임명받아 사진에 없다.

2023년 2학기 개강을 맞이해 한국체육대학교(총장 문원재)는 전임교수 5인을 새롭게 임명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임용으로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과 김병수 교수(펜싱), 체육학과 오혜리 교수(태권도), 체육학과 안현석 교수(배드민턴), 체육학과 김우섭 교수(스포츠 재활), 생활체육대학 노인체육복지학과 전해상 교수가 각자의 위치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됐다.

체육학과 김병수 교수는 “졸업한 모교이자 6년간 조교 생활을 이어왔던 학교에 돌아와 후배들을 가르칠 수 있어 기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도자로서 생활하며 학

생들의 성장을 볼 때 가장 큰 보람과 희열을 느낍니다.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 바른 인성을 겸비한 선수인 동시에 좋은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함께 운동할 것입니다.”라며 소감을 내비쳤다.

체육학과 오혜리 교수는 “학부 시절부터 꿈꾸던 자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 기쁘기도 하지만 어깨가 무겁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교수로서 학생 개인의 목표에 맞는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며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책임감 있는 교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체육학과 안현석 교수는 “우리나라 배드

민턴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적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동을 지도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실행되는 일입니다. 학생의 미래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 주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라며 “그러한 학생 선수를 한국체육대학교가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체육학과 스포츠 재활 전공 김우섭 교수는 “재활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스포츠 기능의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스포츠의 관점에서든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재활이 필요합니다.”라며 “한국체육대학교에 와서 학생들과 재활과 스포츠의 상호 보완적인 이론의 틀을 갖춘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앞으로의 바람을 전했다.

노인체육복지학과 전해상 교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전국에 있는 어느 학생보다 스포츠와 신체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이해를 넓게 가진다면 한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기대를 밝혔다. 이어 “세대 간 교류가 점점 단절되고 있는 현대, 노인에 대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2023학년도 2학기를 시작으로 한국체육대학교의 일원이 된 5인의 교수는 본교 학생들과 함께하게 되어 기쁜 마음을 표했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수업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5인의 교수들이 각학과 지도자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길을 제시하길 기대해 본다.

김채람 수습기자 kimchaeram1121@naver.com

“여러분의 사회 진출을 도울게요” 한국체육대학교 취업박람회 개최

10월 19일 한국체대 대운동장에서 인재개발원이 주최하는 ‘2023학년도 한국체육대학교 취업박람회’가 개최된다. 취업박람회는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의지 향상, 직무 중심의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진행하는 취업박람회는 2012년 진행된 이후로 10년 만에 열린다.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동아오츠카, KOVO(한국배구연맹), 네이버 등 약 15군데의 스포츠 관련 기업과 단체가 참가해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

박람회는 ‘진로(직무) 존’과 ‘취업(채용) 존’으로 나뉜다. 진로 존은 저학년 학생들이 주요 대상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스포츠 포함 다양한 기업에 취업한 동문을 초청해 진로 정보 공유, 자기소개서 첨삭 등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취업 존에서는 고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하며, 기업 채용 공고 등 취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를 총괄하는 인재개발원장 조옥상 교수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학생들의 눈을 키워주려 한다. 실제 졸업생을 초청해 우리 대학 선배들이 어떤 직장에 취직해 있는지, 해당 기관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등을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취업박람회를 통해 취업 역량을 갖추고 동기부여를 느껴 진로를 개척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인재개발원은 이번 취업박람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취업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재개발원 이현미 주무관은 “학과와 연계한 특별 활동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박람회 참가 신청은 온라인 사전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의 경우 취업박람회 참가 시 당일 수업은 공결 처리가 가능하다.

박소영 부장기자 qkrthdud0330@naver.com

“우리에게 학식은 자부심” 체육학과 학식 논란, 내년 예산이 관건 12월 초 국회에서 급식비 최종 확정



올해 식단에 나온 반찬이 김과 김치밖에 없어 부실하다는 인상을 준다.

‘특수목적 지원’을 달성하고 있다

현재 생활관에 입사한 체육학과 학우들에게 제공하는 학식은 교육부 지원금으로 만들어진다. 특수목적대학 실습지원사업예산(이하 ‘특수목적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지원금이 생활관 급식비를 모두 책임지고 있다. 우리 대학이 운동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학우이자 선수인 이들의 식사를 제대로 책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올해 학교는 특수목적예산으로 40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았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다. 작년은 학생마다 만사천 원의 급식비를 330일 동안 지원했다. 작년 물가와 올해 물가가 다른 상황에서 같은 금액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예산 때문에 학식 부실 문제가 거론된 것일까? 이영선 생

활관장을 만나 얘기를 들었다. 식수를 줄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묻자 “방학 중이라 밖에서 먹는 인원이 많아 식수를 줄이게 됐다.”라고 답했다. 이어 예산은 그대로인데 식자재비 및 가스, 기름 등 많이 올랐으며 한푼이라도 아껴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육학과 학우들은 활동량이 많은 만큼 보충을 잘 해줘야 한다며 현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급식비가 줄어들고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줄여야 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전국체전이 얼마 남지 않아 조금 상황 조정했다.”라며 예산을 더 파오기 위해 학교와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생활관장은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와 질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무팀에 따르면, 2024년 예산을 위해 학교는 교육부에 증액된 금액을 요청했다고 한다. 재무팀 관계자는 “(교육부가) 필요성은 인지했으나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아마 감액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예산안은 12월 국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 승인이 남았지만, 정부안 기준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내년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리 대학에 관심 있는 의원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김웅 국회의원은 “(기재부안으로) 올해 대비 약 3%의 예산 삭감이 정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학식 지원금 증액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커뮤니티를 달군 체육학과 학식 불만들

교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을 통해 천마 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체육학과 학식에 대한 불만이 계속 되고 있다. 6월 9일 ‘체육학과 학식’이라는 제목으로 식단이 부실하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반찬이 세 개 나왔는데 이게 맞냐.”라며 반찬으로 시금치, 김치, 고기가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전까지 잘 나오던 다양한 종류의 부식(간식류로 제공되는 음식)도 나오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7월 12일 ‘이제는 밥까지’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게시물이 올라왔다. 식수를 줄인다는 공지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글이었다. 공지 내용은 현재 식비 부족으로 식수를 줄이고 있다, 점심을 제외한 아침, 저녁 식수를 줄이고 있으니 참고 바란다는 생활관장 전달 사항이었다. 게시글을 올린 학

우는 학식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 양까지 줄인다고 말했다. 그는 “식비 예산이 줄어들어 선수들이 피해 보는 건 누구 탓을 해야 하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8월 5일에는 학식 요즘 왜 그러냐며 “정각보다 조금 늦은 10분, 15분만 늦게 가도 음식이 다 떨어지려고 한다.”라고 털어놓았다. 6월 게시글과 같은 맥락의 얘기도 있었다. 우유들도 안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던 요플레, 비요프 등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6월부터 8월 까지 올라온 학식 관련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대체로 학식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대체 체대에서 식비가 부족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라며 “하하하다 먹는 거 가지고 그런다.”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러한 반응 속에서 “근데 곧 공짜(공짜)니가 입 닫고 먹으라는 댓글 달릴 듯”이라며 자조하는 듯한 반응도 있었다.



올해 1월 식단으로 소떡소떡과 미니 김밥재료 등이 나왔다. 개강 후 식단과 차이난다.

학식의 의미

아침부터 야간까지 훈련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식사는 필수다. 학우들에게 학식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물었다. A 학우는 “우리에게 학식은 자부심이다.”라며 “하루에 열 시간 넘게 훈련하는데 밥이 잘 안 나오면 사기가 꺾인다. 그것만 잘해줘도 다들 더 열심히 할 거다.”라고 말했다. B 학우는 “대학마다 상징이 있다. 우리 대학은 학식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상징이 사라진 것만 같아 아쉽다.”라고 밝혔다. D 학우는 “체육학과 학생들에게 밥은 뭐라고 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다. 학식은 오전, 오후, 야간 운동을 하는데 필수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라며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학식에 대한 고민과 불만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 이런 이야기로 인터뷰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E 학우는 “학식을 1순위로 생각하고 우리 대학에 진학하는 선수들도 있다. 그만큼 학교의 자량이었다. 어느 대학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데 (다들) 학식으로 버틴다. 체육학과 학생에게 학식은 운동과 훈련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다.”라고 말했다.

체육학과 학생들이 학식에 갖는 의미가 큰 만큼 지금 상황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컸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줄 수 있다는 얘기에 대부분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C 학우는 내년 예산이 준다는 것에 대해 “우리 대학은 전국에서 제일 운동을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곳이다. 운동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인데 선수들은 모아놓고 이런 대우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답했다. E 학우는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데 내년엔 적어질 것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학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예산(국가지원금)을 줄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학우들은 입을 모아 대학의 설립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년 지원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2023년 7월 12일 수요일 >

신난 어피치

관장님 전달사항입니다.

현재 식비 부족으로 인해서 식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관에 있는 학생들의 현원은 파악되고 있지만, 간혹 나가서 밥을 먹거나 안 먹는 상황으로 인해 식사량의 변동이 있어 잔반을 줄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을 제외한 아침, 저녁 식수를 줄이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간 식사 시간에 밥이 부족한 경우 밥을 다시 해주지 않으므로 부족할 시 개별적으로 해결해주세요. 추후 잔반이 남지 않으면 식수를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17
오전 11

7월 12일 올라온 관장 전달사항이다. 식비 부족을 이유로 식수를 줄인다고 공지했다.

학우들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

체육학과 학우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A 학우는 학생 탓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면 된다. 그런데 잔반 이슈가 핵심적인 원인인 것 마냥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식수 줄이는 이유를 학생들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답했다. B 학우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설득할 만한 정확한 이유를 대지 않는다. 늘 그렇다. 예산 얘기를 하려면 ‘작년과 달리 올해는 상황이 좋지 않다. 예산이 부족하니 학생들이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예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게 없다. 그냥 통보하니가 설득이 안 되고 불만만 쌓인

다.”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학우들이 느끼기에 학식의 질이 떨어진 것은 언제부터일까? 다수의 학생이 올해 1학기 개강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학식 문제에 대해 자세히 묻자, C 학우는 “점심 식사 시간이 12시부터 1시다. 원래 주메뉴가 12시 반부터 떨어져서 교체된다. 그러나 요새는 12시 10분이나 20분만 되고 사라지니까 양이 확실히 준 게 느껴진다. 원 푸드 날(뽕밥류 등이 나오는 날)에도 뽕밥에 여러 반찬이 나왔다면 요새는 뽕밥 하나에 반찬 하나 이렇게 나오니 질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에타에 올라온 사진처럼) 실제로 별레도 봤다.”라며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8월 28일, 29일 애벌레가 나왔다는 사진과

달 익은 닭고기 사진이 에타에 올라오면서 위생 문제가 같이 언급되고 있다.

학식에 예산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선 학우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실제로 지원금이 적어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우가 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학우들도 있었다. C 학우는 “재정문제가 어렵다는 건 이해한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D 학우는 “기숙사 재정 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밥을 가지고 이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먹는 것으로 어려운 재정 상태를 받아들이야만 하는 게 답답하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 학우는 “예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걸 이해하고 싶지 않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수로 계속 운동하는데 그저 ‘예산이 부족하니 참아라.’ 하는 것 같다.”라고 답했다.

입 열고 말하자, 어떻게?

생활관 학식은 체육학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 닫고’ 먹어야 할까? 학생들은 체육학과 내에서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A 학우는 “학과 전체가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같이 해봐야 한다.”라며 “체육학과가 말하는 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킬 건 지키겠다. 이런 건 해줘라.’라고 정리해서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체육학과 학우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졌다. 체육학과 학생회는 8월 28일부터 천마생활관 기숙사 자치위원회(이하 ‘기숙사 자치위원회’)를 모집하고 있다. 여러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결성한 천마 자치위원회는 체육학과 학우들의 불만을 해결 할 수 있을까? 체육학과 학생회를 만나 얘기를 나눴다. 박경우 회장(체육 유도 20)은 “기숙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 문제는 모집 현황이 저조하다. 일단 결성되고 나서 다시 의논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하

지만 인터뷰를 진행한 대부분의 학우는 자치위원회가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보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에 대해 묻자, 박 회장은 “작년 자치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치위원회를 통해 라면 자판기 구비 등 이뤄낸 성과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학생회에서 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힘을 보태려고 한다.”라며 자치위원회 성과를 위해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천마 자치위원회 결성 계기에 관해 묻자, “학생회가 내세웠던 공약과 예외적으로 기숙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다. 그러한 문제들을 모두 다루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자치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었음을 밝혔다.

기자생각 내년을 기다리는 방법

추가 예산 유치, 잔반처리 비용 절감, 자치위원회 창설 등 생활관 학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학식 논란을 종식시킬 확실한 방안은 내년 예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내년 체육학과 학식 예산은 12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특수목적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은 9월 초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승인이 난 후 국회로 넘어간다. 이후 12월 초에 국회 의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학교는 12월 말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통해 문서로 최종적인 예산안을 받는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을 받아오지 않는 이상 지금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언제까지 학생들이 감수하고 넘어갈지 모른다. 내년을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부터 학생들을 설득하는 게 현실적이다.

박서진 부장기자 psj3158gh@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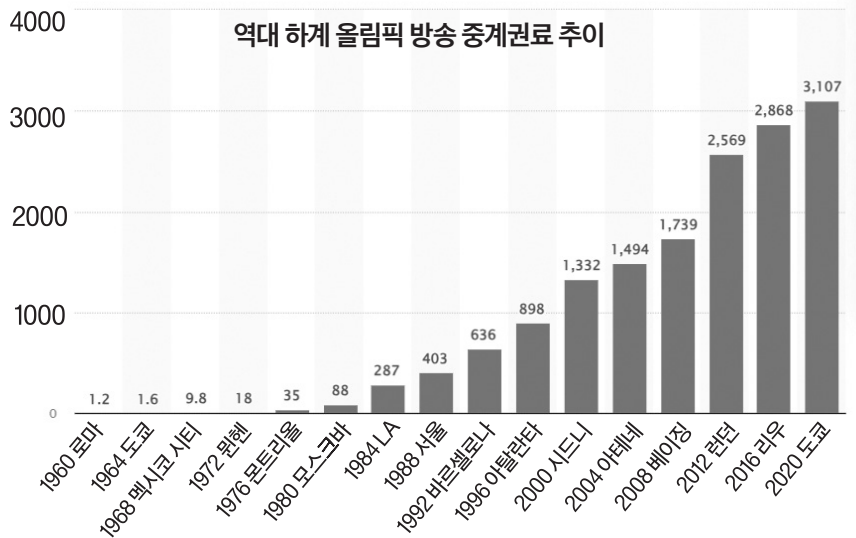
득인가 실인가?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국에 남은 유산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는 전 세계에 자국을 알릴 기회다. 개최국 경쟁에 참여한 국가는 자국에서 이벤트가 열리기를 바라며 선정되기를 기다린다. 진행자가 개최국 이름이 적힌 카드를 꺼내든다. 선정된 국가는 서로를 부동켜안아 기쁨을 만끽하고, 그 외의 국가는 박수갈채와 함께 축하를 건넨다. 이토록 개최국이 되길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이득이 있기에 많은 국가가 대회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걸까? 닷새 뒤 열릴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맞아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영향력과 사회적 의미를 파헤쳐 봤다.

송차호 수습기자 ckgh1183@naver.com

산업과 경제까지 잡았다



1960년 이후 역대 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료 추이다. 스포츠 이벤트의 가치가 각광받기 시작한 1984 LA 올림픽 이후 2억 8,700만 달러(약 3,800억 원), 2000년대부터 13억 달러(약 1조 7,6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출처 : Statista

메가 스포츠 이벤트, 대규모 스포츠 행사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참여를 받는 특별한 스포츠 대회를 뜻한다. 이러한 이벤트는 다양한 종목과 국가의 참가자들이 모여 경기를 벌이며,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관중과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예로는 월드컵이 있다. 단일 종목을 다루는 대회지만,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며 산업적, 경제적 효과가 큰 대규모 이벤트다. 이 또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라 칭한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을까. 우리 대학에서 ‘사회체육행정’과목을 가르치는 김두한 교수와의 만남에서 역사적 흐름을 들을 수 있었다. 김 교수는 100여년 전, 쿠베르탱이 창설한 근대 올림픽을 언급하면서, 이 당시에 쿠베르탱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효과나 성과에 대한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 말했다. 이후 그는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스포츠라는 것이 양적 또는 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던 것”이라며 스포츠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가치적으로 스포츠가 다양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와 기업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스포츠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라는 대답을 건넸다.

스포츠가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스포츠 이벤트의 가치는 각광받기 시작했다. 그 기점은 ‘1984년 LA 올림픽’이다. 김 교수는 추가적으로 올림픽을 홍보하기 위해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올림픽 마케팅인 ‘TOP(The Olympic Partner)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LA 올림픽이 종료된 후로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TOP프로그램이 생성됐다.”라며 스포츠 이벤트가 막대한 시장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게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교수는 90년대 메가 스포츠를 언급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경우, 여러 기업이 자연스럽게 후원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규모는 점차 커지게 된 것이다. “스포츠의 경제적 이용가치가 기업들에게 먼저 인식됐고, 자신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나 홍보로 이용하면서 이벤트의 규모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2000년대를 이후로 방송 중계 기술, 스포츠 과학이 접목된 부분을 설명했다. 그와 동시에 “다양한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발전하고, 이를 시청하고 열광할 수 있는 대중적 흥미 요소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됐다.”라고 답했다. 이렇듯 스포츠 이벤트의 가치를 인식하면서부터 대중의 흥미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산업 발전의 요인 또한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인 조명을 받을 기회

개최국이 얻는 가시적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대학에서 ‘스포츠 외교론’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최주현 교수를 만났다. 첫 번째는 단기적인 경제적 활성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는 만큼 수요는 많아지게 된다. 즉,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대규모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한다.

두 번째 효과는 사회적 결속이다. 최 교수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국민이 하나

의 목표를 공유하게 만든다.”라는 말과 함께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붉은 악마’의 모습을 예시로 들어 사회적 결속의 효과를 설명했다. 마지막 긍정 효과는 국가 이미지 제고 측면을 꼽았다. 성공적으로 개최된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개최 국가의 이미지와 명성을 높인다. 가령 최 교수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인에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며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다.”라고 설명했다.

조명 밖 그림자



LA 지역 사회 일부 주민들은 유치 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며 대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선 다른 하나는 거머쥘 수 없게 된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주최하면서 거대한 조명을 받는 만큼 그 뒤는 더욱 어두워진다. 앞서 최주현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적 경제의 활성화, 사회적 결속, 국제 이미지 제고’ 효과를 알 수 있었으나 비춰지지 않는 어두운 측면 또한 공존한다. 우선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따른 비용 문제’이다. 행사 개최에 필요한 시설 건설 및 운영비용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최주현 교수는 “만일 예상보다 적은 경제 효과만 얻게 된다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평창 동계 올림픽 시설 유지 운영 측면을 언급했다. 그는 “평창 올림픽의 경우 경기장 건설비용만 8600억을 사용했다. 그러나 2019년도를 기준으로 13곳 중 8곳은 방치돼 있다.”라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사후 활용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약 200억원의 유지비가 지출되고 있어 강원도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환경 문제’다. 앞서 취재했던 김두한 교수는 “이벤트 개최 준비와 유치 과정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이보

다 큰 문제는 특정 국가, 도시가 전 세계의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주현 교수 또한 “대규모 시설 건설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 문제도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치 동계 올림픽 경기장 건설로 고대 삼림 지역과 강 근처의 간선도로, 철도 부설 등의 사례를 들어 환경 파괴 사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분열의 측면’이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게 되면서 사회적인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개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이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 부담 등을 우려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최주현 교수는 이러한 측면에 대해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운동의 용어인 ‘놀림픽(NOLympics)’을 언급했다. 놀림픽(NOLympics)이란 ‘No’와 ‘Olympics’을 합친 단어를 뜻한다. 2028년 LA 하계 올림픽 개최를 반대하는 지역사회 단체가 ‘NOLympics LA’라 명명하며 유래했다. 이어 그는 “유럽의 많은 도시에서는 개최도시의 주민 투표 결과 반대표가 많아 개최를 포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라고 설명했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쓰아올린 작은 공



우리 대학과 교육부가 주관한 ‘한국체대 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이 끝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도 전문 체육을 중심으로 생활체육과의 경계를 허물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최국이 얻은 효과는 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많이 드러난다. 이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가 높다는 의미기도 하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근무 중인 조현주 선임연구위원과의 대화

에서 자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먼저 “사회적인 효과는 사실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커가는 과정 속에서 달라져 왔다”라는 말과 함께 대화를 이어 나갔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메가 스포츠 이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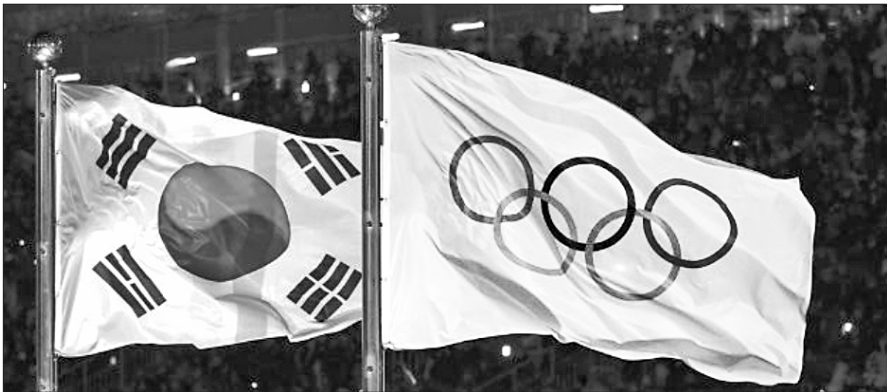
트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심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홍보, 그에 대한 대중들의 흥미는 점차 커갔다.”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뿌려 놓았던 것이 현재 생활 체육의 토대가 된 것이다. 이어 그는 “이로 인해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졌고, 그 효과로 메가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된 시민 행사에 참여하는 이들이 증가하게 됐다. 시민들의 참여는 자연스럽게 시민사회에 합류하게 되는 기제로 활용되기도 한다.”라며 개개인의 효과를 답했다.

거시적인 측면은 앞서 다룬 미시적인 측면의 효과로부터 이어진다. “개개인의 스포츠 활동을 넘어서 스포츠 관광에까지 이어지며,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어 국가 중심적인 긍정적 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어땠나?

우리나라도 올림픽과 월드컵 등 개최국을 맡은 이력이 있는 만큼 발생한 과급효과와 위험성을 오랜 세월 경험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야기를 듣고자 평창기념재단에 종사하는 최혜민 팀장에게 자문을 구했다. 개최 진행 과정을 묻자, 최 팀장은 “개최 전에는 IOC 조직위원들과의 효율적인 회의에 중점을 뒀다. 대회 기간에는 안전을 중요시했고, 대회 이후는 레거시의 이전에 초점을 뒀다.”라고 답했다.

평창 올림픽을 열면서 최 팀장은 “전 세계에 평창이라는 도시를 알렸다는 점이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이라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강원도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숙박시설을 비롯한 관광 수용성이 발전했다.”라며 인프라를 구축하는 원동력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효과의 답변을 내놓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진행된 올림픽스타디움에서 태극기와 오륜기가 함께 휘날리고 있다.

반면에 “남은 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들도 있다.”라며 부정적 효과를 꺼냈다. 그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때는 그 유산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최 과정에서 당장에 급한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구조다 보니 수립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기자생각 그럼에도 개최국이 되고 싶은 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주체가 돼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열려는 이유가 있을까? 개최 이후에 이뤄지는 무역의 성장과 국가의 이미지 제고, 결과적으로 ‘돈’이 된다는 것이다. 어쩌면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행사에서 이는 큰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 큰 이유는 주목에 대한 갈망일 것이다. 나라를 알리고, 메가 스포츠 이벤트 이후에도 조명 받았다는 각오이다. 각본 없는 드라마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개개인이 하나가 되는 힘을 갖고 있다. 주변의 기대감은 그들에게 큰 동기부여이자, 열의를 준다. 동시에 그들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선수도, 국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력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스포츠에 더욱 열광하고, 즐기는 것은 아닐까.

‘부상’을 딛고 ‘부상’ 할 체육계

2021년 우리 대학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대학발전연구과제(2021))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24명 중 357명 (68.1%)가 부상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운동선수는 부상을 안고 살아간다. 신체를 극한으로 사용하기에 운동선수가 다치는 것이 빈번하다. 그러나 부상을 이겨내 다시 경기장에 돌아오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극복했을까? 그 과정 속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백종훈 수습기자 3605a@naver.com

스포츠 의학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1986 서울 아시안게임, 1988 서울 올림픽과 같은 메가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됐다. 이때 선진문물인 스포츠 의학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됐다. 그 전에 운동선수들의 부상은 경기를 치르며 당연히 따라오는 것으로 여겨졌다. 치료는 기본적인 찜질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지도자가 정신력을 운운하여 조기 복귀를 하는 상황도 잦았다. 그리고 부상과 수술, 재활의 실패 사례가 많았다. 심지어 응급 처치도 잘 이뤄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나왔다. 그러나 현재 큰 수술이나 재활 이후에도 운동선수는 제 기량을 되찾고 경기에 나선다. 부상 방지뿐 아니라 경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준 것이다. 이는 스포츠 의학 발전의 결과다.

우리 대학 운동건강관리학과 윤진호 교수에게 구체적인 발전을 물었다. “스포츠 의학은 신체 활동, 운동 및 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부상 및 질병의 예방, 진단에 초점을 맞춘 분야다. MRI, CT 스캔과 같은 첨단 영상 기술의 등장, 그리고 여러 수술 기

법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답했다. 또한 “재활 프로토콜, 부상 예방 프로그램과 같은 제도들도 선수들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스포츠 의학 팀의 증가도 중요했다. 의학 팀의 증가는 선수들과 의학이 쉽게 만날 수 있게 했다. 또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협력해 선수의 재활 및 복귀를 준비했다. 그 결과 선수들이 성공적으로 복귀하게 됐다.”라며 스포츠 의학의 발전이 부상 치료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했다.

고통을 딛고 큰 무대로

부상 없이 모든 대회를 치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부상은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경기나 훈련 중에 다칠 수 있고, 여가를 보내다 다칠 때도 있다.

한저우 아시안게임을 석 달 앞둔 6월, 스포츠 클라이밍 스피드 국가대표 노희주 학우(경기지도 23)는 무릎 외측 인대가 파열됐다. 국가대표에 선발된 후 겪은 부상이었다. 아시안게임에 큰 지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또한,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어 치료 및 재활도 어려웠다. 노 학우는 “처음 다쳤을 당시엔 괜찮다고 생각했다. 불편함을 호소했으나 큰 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걷지도 못할 통증으로 병원에 가게 됐다.”라며 부상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병원 검사를 통해 외측 측부인대가 파열됐다는 소식을 접했고, 5주 정도 훈련을 쉬었다고 이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노 학우는 “다친 오른쪽 다리 근육이 많이 빠졌다. 오른쪽 근육을 다시 발달시키기 위한 웨이트와 재활을 병행했다.”라며 재활 방식을 밝혔다. 충격과 파열치료와 같은 치료도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저우 아시안게임을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지금의 몸 상태는 어떻게. 노 학우는 지난 7월 말부터 다시 훈련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테이핑만 잘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회복했다.”라며 아시안게임 출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대회에 임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경을 딛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우리 학우는 또 있다. 바로 육상 국가대표 주승균 학우(체육 단거리 20)다. 주 학우는 지난해 친구들과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던 중 발목 인대가 파열돼 큰 고생을 했다. 주 학우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회복이 다 안 됐다.”라며 아직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상이 오히려 열심히 운동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됐다. 특히 부족한 부분을 혼자서 따로 훈련하는 습관을 기르게 됐다.”라며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았다. 치료 과정에 관하여 묻자, “오전에 한 번, 오후 운동이 끝난 뒤 또 한 번, 매일 두 차례 물리치료를 받았다. 아시안게임을 생각하면서 재활치료와 훈련에 매진했다.”라며 우리 대학 물리치료실을 적극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와 협약을 맺은 병원에서 주사 및 진료를 받고, 할인 받아 금액적인 지원을 받았다. 이 덕분에 아시안게임에 선발될 수 있었다.”라며 학교의 의료지원을 잘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렇듯 현대의 선수들은 과거보다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통해 회복하고 있다.



송동주 동문(42회 졸, 광주광역시체육회)이 수술한 병원에서 집볼을 이용한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캠퍼스 내 필승관 2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있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박미경 팀장(이하 ‘박 팀장’)을 만났다. 물리치료실이 다친 선수를 위해 어떤 식으로 치료를 진행하냐는 질문에 박 팀장은 “다친 선수들은 심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상태로 찾아온다.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역할이다. 이후에 전기 치료, 충격과 치료, 재활 코칭 등의 치료를 시작한다.”라고 답했다. 이에 덧붙여 박 팀장은 “체육학과 학생들뿐만 아니

라 일반학과 학생들도 다쳤다면 물리치료실을 방문해도 괜찮다.”라며 물리치료실은 학과 구분 없이 우리 학교 학우들의 부상 예방 및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물리치료실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다. 문원재 총장 부임 이후 물리치료실에 의사가 새로 배정됐다. 박 팀장은 “물리치료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을 정확히 진단하기가 어렵다. 이전에는 외부 병원에 의뢰한 후에 그 진단 결과에 따라 치료했다. 그러나 이제 배정받은 의사 선생님이 오시면 즉각적인 진단과 함께 빠른 치료

가 이뤄질 수 있을 거 같다.”라며 더 발전된 치료를 약속했다. “특히 물리치료실을 위한 제도나 지원이 부족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 기쁘다.”라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8회 전국실업 스쿼시 선수권대회(개인전)에 출전해 다친 국가대표 송동주 동문(42회 졸, 광주광역시체육회)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송 동문은 2022 한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 예정이었으나 경기 중 입은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무산됐다. 부상 당시를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다치자마자 아시안게임을 위해 정말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출전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갔다.”라며 부상 당시를 회상했다. 현재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쳐 휴식에 몰두하고 있다. 이후 복귀하기 위한 재활 과정은 광주스포츠과학 연구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송 동문이 광주광역시체육회 소속 선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듯 실업팀 소속 선수들은 여러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부상 이후 경기장에 복귀할 때까지의 과정을 지원받기도 한다.

실업팀을 포함한 체육계는 부상 방지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윤 교수에게 물었다. 윤 교수는 의료지원을 대표로 예를 들었다. “현재 진천선수촌에는 메디컬 센터가 있다. 이는 부상으로 인해 컨디션이 저하된 선수들을 위한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종목별 특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라며 메디컬 센터의 역할을 말했다. 이외에도 “각 스포츠팀마다 전담 의료진이 배치돼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며 체육계의 의료지원을 설명했다.



지난 해 여름, 발목 인대 파열을 당한 주승균 학우(체육 단거리 20)의 오른쪽 발에 멍이 들어 있다. 오른쪽 사진은 왼발과 비교해 오른발이 부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부족한 시스템



물리치료실 강세웅 주무관이 학생의 발목에 테이핑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지원은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 국가대표와 프로 스포츠팀에 국한된 이야기다. 다른 비인기 종목 선수들은 마땅한 지원과 제도를 받지 못했다. 앞서 언급한 노 학우가 그 예시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처음 채택된 종목으로 우리나라

에서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다. 국가대표에 승선해 아시안게임에 나서게 된 노 학우가 아시안게임을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무릎 인대가 파열됐다. 그러나 노 학우는 학교나 협회에서 어떤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임에도 부상 회복을 위한 아무

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투명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없었다. 이는 국가대표가 아닌 선수들은 더욱 외로운 처지에 놓여져 있을 것이라 얘기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대학 역시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박 팀장은 “몇몇 선수들이 물리치료실에 와서 치료 및 회복을 하고 돌아간다. 그런데 이때, 지도자들이 ‘운동하기 싫어서 물리치료실에 간 거 아니냐?’라는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물리치료실은 선수들의 부상 회복 및 방지에 힘쓰는 곳이다. 물리치료실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선수 본인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증거다. 일부 지도자들의 편협한 사고가 부상 관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 인력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다. 현재 물리치료실에는 28개의 침대가 있다. 이는 대학 단일 물리치료실 기준 가장 많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해 선수들의 대기시간이 길다. 특히 평일 13시부터 15시까지 치료를 기다리는 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근무 중인 학교 물리치료사 수는 6명이다. 적은 인력에 비해 선수들이 붐벼서 힘든 상황이다. 1:1 치료 방식을 채택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성별만 나눠서 치료하는 실정이라고 박 팀장은 밝혔다. “1:1 치료 방식으로 인원을 치료하면 학우와 치료사의 상호 신뢰가 형성돼 치료 과정에서 혼돈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무리한 일정을 요구하는 종목도 존재한다. 2023년 8월에 우리 학교 교수로 임용된 태권도부 오혜리 교수는 “선수들의 부상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 바쁜 대회 일정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태권도 종목 특성상 세계선수권 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가 연달아 겹친다. 이 때문에 다친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겪는다.”라며 선수들이 혹사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오 교수는 협회에 일정 관련해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자생각

선수들의 열망이 경기장에서 피어날 수 있도록

지난 날 부상은 스포츠 활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의식이 팽배했다. 현재는 의학의 발전에 힘입어 경기장에 복귀하는 선수가 많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다. NBA(미국 프로농구)의 경우, 1988년부터 여러 정보를 수집해 부상 방지 프로그램과 보호구를 개발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데이터 자체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선수 관리 시스템과 예방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학의 힘을 빌려 선수들이 부상과 맞서 싸우는 지금, 체육계는 안전한 환경 구축은 물론 선수들이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울려라 애국가,

2023년 9월 23일, 항저우에 태극기를 걸 그들이 돌아온다. 5년 전 열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졸업생을 포함 그때의 영광을 이어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는 36명의 한국체대 재학생이 양궁, 사격, 골프 등 17개 종목에 출전한다. 18 한국 스포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책임지는 선수들이 굳건한 포부를 담은 메시지를 보내왔다. 우리 선수들은 어떤

박소영 부장기자

“한국체대인의 자부심을 걸고 반드시 정상에 가겠습니다.”

-성승민(체육 23 근대5종)-

“함께 운동하는 동료들이랑 메달을 함께 따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잘하고 싶습니다.”

-정용준(경기지도 23 스포츠클라이밍)-

“경기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하는 선수가 되면 좋겠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우(체육 21 핸드볼)-

“400m 종목에서 오랫동안 깨지지 않는 한국 신기록을 깨고 꼭 메달 따오겠습니다.”

-주승균(체육 20 육상)-

“스포츠클라이밍 종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그 응원에 부응해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주(경기지도 23 스포츠클라이밍)-

“각 나라의 최고의 선수와 함께 경기하면서 경험하며 배워오고 싶습니다!”

-양지인(체육 22 사격) -

“긴장하지 않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한 나라의 대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록으로 보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원빈(체육 20 육상)-

“(높이뛰기) PB(Personal Best, 개인 최고 기록)를 꼭 넘고 싶습니다. 최고 기록을 넘겨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오수정(체육 21 육상)-

“죽을 것 같아도 죽진 않는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선수촌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유진(체육 21 조정)-

“지금까지 세워본 적 없는 기록을 세우고 싶습니다. 또 후회 없는 경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시문(체육 20 육상)-

“결과보단 스스로 얼마나 그 경기에 노력을 쏟아부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재성(체육 20 육상)-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것을 다 보여주고 금메달을 따고 돌아오겠습니다. 파이팅!”

-장유빈(체육 21 골프)-

“이번 아시안게임에 아마추어 선수 2명과 함께 출전하는데, 함께 꼭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임성재(체육 17 골프)-

“나가고 싶어도 모두가 나갈 수 없는 대회이니 그 누구보다 좋은 성적을 내 한국에 금메달을 들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우영(체육 20 골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입상 기대해주세요!”

-김종민 (체육 20 조정)-

“학교와 국가를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할 것이고 무조건 메달을 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한재진(경기지도 23 스케이트보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바라보며 많은 땀을 흘리고 끝없는 훈련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좋은 결과 받아오겠습니다.”

-이용석(체육 21 수구)-



들어라 아시아

해 한국체대가 거둔 메달은 대한민국 총 메달 177개 중 47개였다.
일(발간일) 기준 개막을 5일 앞둔 순간,
만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고 있을까?

krthdud0330@naver.com, 김채람 수습기자 kimchaeram1121@naver.com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재학생 36인의 인터뷰를
해당 링크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기를 왼쪽 가슴에 달고 나가는 만큼,
저희의 심장이 뛰는 만큼 성장하고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
-권태우(체육 21 수구)-

“
다치지 않고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서현(경기지도 23 세팍타크로)-

“
처음으로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떨리고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호준(체육 23 수구)-

“
메달을 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뛰기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운동한 만큼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훈(체육 23 수구)-

“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그 이상을 보여주자는 마음입니다.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믿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백정현(체육 20 카누 슬라럼)-

“
대한민국과 한국체대를 대표하여 그동안 노력한 만큼
최고의 레이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카누 용선(드래곤보트)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차태희(체육 20 카누 드래곤보트)-

“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만큼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파이팅 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
-임시현(체육 22 양궁)-

“
나라와 학교의 이름을 걸고 출전하는 만큼
멋진 경기와 좋은 성적 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건우(체육 22 태권도)-

“
열심히 훈련한 만큼 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좋은 결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도현(경기지도 21 스포츠 클라이밍 볼더링)-

“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첫 아시안게임이라
많이 긴장되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나가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재용(체육 22 카누 드래곤보트)-

“
이번 아시안게임이 처음이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훈련했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금빛 레이스를 펼치고 오겠습니다!

”
-황민규(체육 22 카누 드래곤보트)-

“
한국 최고의 체육대학인 한국체대를 대표해
최고의 레이스를 보여주고 오겠습니다.

”
-이현주(체육 21 카누 드래곤보트)-

“
젊은 나이에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메달을 손에 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시덕(체육 22 수구)-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목 선정 논란, 진정한 스포츠는 무엇인가?

스포츠를 통해 아시아 국가 간 ‘우호’와 ‘세계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창설된 대회. 아시안게임의 사전적 정의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은 개최될 때마다 종목 선정에 관한 논란을 빚고 있다. ‘콘트랙트 브리지’가 대표적인 예시다. 콘트랙트 브리지만 모든 플레이 카드 게임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게임이다. 이 종목은 2015년 유럽 사법재판소가 공식으로 “카드 게임은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 채택됐다. 이러한 종목 선정 논란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연례행사처럼 이뤄지고 있다. 다가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선우 기자 sunwoolee4747@naver.com

논란의 네 종목

과거 누구도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던 보드 게임과 e스포츠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보드게임 중 바둑은 14년 만에 돌아왔다.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아시안게임에 채택된 건 처음이다. 더불어 브레이킹(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스트

릿댄스의 일종으로, 힙합음악의 브레이크 비트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2020년 12월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아시안게임에 처음 선보인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스포츠 입지를 굳혀온 볼링은 제외됐다. 왜일까. 종목을 선정한 대회 조직위를 향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국체대 학생들에게 묻다

종목 선정 기준을 파헤치기에 앞서 우리 대학 학생들은 스포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한국체육대학교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종목별 학우들의 스포츠 인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 종목은 앞서 언급한 네 종목이었다. 본 설문은 한국체대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59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e스포츠가 스포츠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45.8%였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54.2%로 스포츠가 아니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반면 ‘브레이킹이 스포츠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은 71.2%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28.8%로 스포츠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 또 ‘바둑이 스포츠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42.2%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57.6%였다. 마지막으로 ‘볼링이 스포츠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응답은 88.1%이고,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11.9%로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학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체대 학우들은 스포츠를 어떻게 생각할까
59명 응답



공정하지 않은 e스포츠 세부 종목 선정

5년 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운영됐던 e스포츠는 젊은 팬들의 인기를 등에 업고 정식 종목으로 올라섰다. 여전히 스포츠냐 아니냐의 논란의 대두 속에 있는 e스포츠는 세부 종목 선정 기준에서조차 순탄하지 않다. 세부 종목 중 하나인 블리드자 사(대표자 로버트 J 리)의 ‘하스스톤’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e스포츠 종목에서 제외된 것이다. ‘하스스톤’이 제외된 것은 블리드자의 게임이 지난 1월 24일부터 중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아시아e스포츠협회(AESF) 측은 “블리드자의 게임이 중국에서 운영 중단되면서 아시안게임 대회 종목에 포함할 수 없게 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스포츠 협회 관계자는 “결국 ‘하스스톤’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에서 빠지게 됐다. 지난해 선발된 선수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라고 말했다. 강수빈 선수(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하스스톤 국가대표 선발전 최종 3위)는 “개최국인 중국에서 하스스톤을 플레이 할 수 없게 되면서, 하스스톤이 아시안게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스스톤의 아시안게임 제외로 인해 지금은 다른 하스스톤 대회의 존재까지 걱정해야 됩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렇게 ‘하스스톤’이 빠지면서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스트리트 파이터 5’,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도타2’, ‘펜타스톰’, ‘피파 온라인 4’, ‘몽삼국 2’ 총 7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하스스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 또한 논란도 있다. ‘몽삼국 2’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만 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선수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강수빈 선수는 “몽삼국2의 종목 채택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경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참가국이 적은 종목은 채택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라며 동계 아시안게임에 썰매 종목을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몽삼국2는 중화권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거의 서비스가 되지 않으며, 대회 자체도 중국에서만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최국 메달 하나 쟁기기’라는 평가가 따라붙는 이유입니다.”라며 중국의 종목 선정 기준을 비판했다.

격렬한 신체활동만 인정한다 vs 경쟁·유희성, 광의의 스포츠다

바둑, e스포츠와 같이 큰 신체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종목들이 진정한 스포츠냐는 논쟁은 끝이 없다. 스포츠란 본래 여가 활동과 체력 단련을 위해 하는 신체 운동과 그 경기를 일컫는 단어다. 체육철학 강의를 진행하는 김홍식 교수는 “바둑과 게임이 즐거움은 줄지언정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라며 진정한 스포츠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A학우 역시 “바둑과 e스포츠가 격렬히 몸을 움직이지도, 땀을 흘리지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현직 바둑 프로기사로 활동 중인 장혜령 기사(명지대)는 “바둑을

스포츠로 인정 안 해주는 사람들도 많습다. 하지만 규칙과 전략을 통해 승부를 겨루는 게임이기 때문에 명백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스포츠가 승패를 가르는 경쟁이면서 유희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는 바둑과 게임은 광의의 스포츠가 맞다. 두뇌를 써 전략으로 승부한다는 특성까지 더하면 체스, 브릿지, 장기까지 스포츠에 포함시켜도 무리는 없다. 스포츠란 단어가 본래 여가를 뜻하는 옛 프랑스어 ‘데스포르(desport)’에서 유래한 단어임을 고려하면 바둑과 e스포츠가 스포츠로 편입돼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장혜령 바둑 프로기사(명지대)가 바둑을 두고 있다.

브레이킹 정식 종목 채택, 긍정적 여론

이번에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선정된 브레이킹은 아르헨티나 유스 올림픽에 선정된 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선정됐다. 올림픽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킹은 끊임없이 스포츠냐 아니냐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다만,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 브레이킹이 스포츠라는 의견이 71.2%가 나왔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스포츠라고 본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다. 한국

체대 학우들이 ‘진정한 스포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답변이 ‘신체 활동으로 땀을 흘리며 승부를 본다’는 점’을 꼽았다. 브레이킹이 새로 도입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대체로 많았다. 문병순 교수(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 학부장)는 “교수로서, 또 춤을 사랑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제도적 차원에서 브레이킹이 한층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브레이킹의 정식 종목 도입에 기쁜 마음을 표했다. “지금의 인기를 오래 이어가 전 국민이 즐기는 장르로 거듭나길 바란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한 마디 더하자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력은 이미 세계적이다. 입상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대한민국 댄스스포츠의 위상을 전했다.

불리한 종목은 제외한 중국

반면 스포츠라 생각했는데 제외된 종목도 존재한다. 먼저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수많은 메달을 안겨줬던 대한민국 강세 종목인 볼링이 제외되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2개를 따올 정도로 ‘효자 종목’이다. 1990 베이징 아시안게임 이후 다시 제외된 건 32년 만이다. 볼링이 채택된 이후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2차례 배제됐다. 이에 대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항저우에 국제대회를 치를 만한 볼링 경기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이것이 볼링을 정식 종목에서 제외시킨 이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대한볼링협회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대한볼링협회에 중국이 볼링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볼링은 중국에서는 워낙 낙후돼 있고 협회도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강하고 자국에게 취약한 볼링을 제외한 것입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볼링 3연속(2010, 14, 18) 금메달을 차지한 홍해술 동문(33회 졸)은 “세계볼링연맹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시안게임조



홍해술 동문(33회 졸)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볼링 경기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볼링은 볼 수 없다. 출처: 세계일보

차 정식 종목으로 채택 받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앞선 우리 학교 학우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포츠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4개

종목 중 볼링이 8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로 도입된 종목보다 제외된 종목이 학우들에겐 스포츠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던 것이다.

입맛에 따라 종목을 바꾼 이유 : 못할 바에는 없앤다

자국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개최하면 어쩔 수 없이 자국에 유리한 종목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김 교수 역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자국 위주의 종목 선정은 배제되기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메가 스포츠 이벤

트는 흥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국민들로 객석을 채울 수 있는 종목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이 더 큰 비난을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국에서만 경기가 가능한 e스포츠 종목을 넣고 자신들이 열등한 종목들을 다른 협회와

상의 없이 제외 시켰다. 아시안게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한 국가대표들과 스포츠를 즐기는 관중들을 무시한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다. 스포츠 정신에 위반되는 걸 알면서도 자국의 이득을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기자생각 진정한 스포츠 축제를 위해

언젠가부터 스포츠의 정의가 모호해졌다. 과거에는 ‘격렬한 신체활동’이라는 조건이 붙었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아시안게임 뿐만 아니라 올림픽도 계속해서 새로운 종목들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진정한 스포츠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지금, 스포츠의 정의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야 한다. 지나치게 자국 위주로 선정하는 종목 기준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종목의 도입은 하나의 스포츠 개혁으로도 볼 수도 있다. e스포츠나 브레이킹으로 인해 젊은 층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 스포츠를 특정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길 바란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하스스톤 종목 제외 안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하스스톤 종목 제외에 대한 한국e스포츠협회의 입장문 일부이다. 전문에는 출전 무산의 아쉬움과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겨 있다. 출처: 한국e스포츠협회

진로고민 상담소 : 스포츠 지도자 편

체육학과 재학생 중 은퇴 후 전문 스포츠 지도자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궁금증과 고민을 해소하고자 이번 9월 진로 고민 상담소에서는 전문 스포츠 지도자로 재직 중인 동문들의 이야기를 준비했다. 특별히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맞아 우리 대학 소속 아시안게임 지도자들을 만났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선수 일부는 지도자의 ‘정신적 지지’가 큰 도움이 됐으며 입을 모아 말했다. 미래 지도자를 꿈꾸는 우리 학우들은 어떤 역할을 갖춰야 할까?

이세은 수습기자 sae_un@naver.com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복싱 국가대표팀 감독 한형민 동문 (체육학과 90학번)

Q. 감독님과 복싱의 첫 만남이 궁금합니다.

A. 원래 수영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일이 빨라 초등학생 수영 대회에 나갈 수 없게 되자 운동을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인이 하는 복싱 체육관에 방문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복싱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제1회 동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도자를 꿈꾸진 않았습니니다. 다만 좀 더 확실한 미래를 그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유종만 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님이 “일본에서 지도자 해보지 않을까?”라고 하셔서 현역 선수로 활동하던 실업팀에 사표를 내고 무작정 일본으로 가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선수 생활을 하며 ‘열심히 하면 길은 열린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제가 깨달은 것들을 선수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Q. 어떤 과정을 거쳐 지도자가 되셨나요?

A. 전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1급과 2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런 후 일본에서 지도자를 하면서 지도 방식을 터득했어요. 일본에서 가르친 학생의 성적이 좋아서 한국에서 복싱 국가대표 지도자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국가대표 지도자가 되려면 세계복싱협회에서 스타를 획득해야 합니다. 스타란 국제 코치 자격증입니다. 세계복싱협회에서 취득할 수 있어요. 등급으로는 1 스타, 2 스타, 3 스타 있습니다. 메이지 대회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올림픽

경기 등 스타 자격증이 없으면 링 세컨드를 볼 수 없습니다. 세컨드란 복서의 코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선수단 구성원을 의미해요. 그래서 스타 자격증은 국제 대회 때 꼭 필요합니다. 스타 자격증이 없으면 국가대표, 국가대표 후보선수 전임지도자 등 감독, 지도자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제 시합에서 지도자로 나갈 수 있는 1 스타에서 링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인 3 스타까지 됐어요. 스타 교육은 7일~9일 정도 이루어지며, 자기 코칭법과 자기 기술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간 훈련 계획서, 연관 훈련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스타가 주어져요.

Q. 지도자를 하시며 어떤 순간 가장 큰 희열을 느꼈나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A. 제자가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유의미한 지도법을 터득했다는 희열을 느껴요. 예를 들어 다재다능한 선수가 특정 기술이 부족하다면 그 기술을 대회 전까지 반복시킵니다. 이렇게 지도받은 선수가 일본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제3회 동아시안게임에서도 우승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본을 떠날 때 자신의 금메달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후에 제자 결혼식에 초대받았을 때 제가 획득한 제1회 동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선물했습니다. 이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열심히 하면 길은 열린다”



Q. 항저우 아시안게임 복싱 대표팀 감독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작년 4월 3일부터 진천 선수촌에 들어갔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국제 대회를 지도하며 경험을 쌓았어요. 또, 전지훈련으로 몽골을 다녀왔고 그 후 일본 선수들, 우즈베키스탄 선수들, 카자흐스탄 선수들을 초청해 함께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선수들에게 ‘하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선수들과 소통을 많이 하며 신뢰도 두텁게 쌓았어요.

Q. 지도자가 갖춰야 할 역할은?

A. 지도자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운동에만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수들과 활발한 소통과 끈끈한 신뢰를 토대로 정신적인 면을 함양하는 것 같아요. 이를 위해 스포츠과학연구원이나 심리상담을 이용해 선수들의 상태를 파악해요. 그다음에 선수들과의 일대일 개인 면담을 통해 제가 선수 시절 겪었던 일들을 말해주며 정서적 도움을 줍니다.

Q. 이옥성, 김정주, 한순철, 아리안 코치와 함께 지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들과의 호흡은 어떤가요?

A. 우선 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마음 한뜻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옥성 지도자, 김정주 지도자와는 태릉 선수촌에서 4

년간 같이 살았어요. 또 한순철 지도자가 현역 선수로 런던 올림픽에 출전할 때, 제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라 마음이 잘 맞아요. 외국인 아리안 지도자와의 언어소통은 어렵지만, 마음으로 소통한다 생각합니다.

Q. 지도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수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면

A. 지도자 길을 간다면 우선 성실해야 합니다. 또, 어느 종목이든 그 종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해요.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 등을 수료한다면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형민 (52세)

- ▲ 1971. 01. 07. 경기도
- ▲ 1990. 3 한국체대 입학
- ▲ 1993. 5 제1회 동아시아경기대회 복싱 라이트웰터급 금메달
- ▲ 1996 애틀랜타 올림픽 복싱 국가대표
- ▲ 1999 ~ 2002 일본 스포츠 국제교류원 복싱 감독
- ▲ 2011 ~ 2016 대한민국 복싱 국가대표 코치
- ▲ 2017 ~ 2022 대한민국 국가대표 우수선수 전임 감독
- ▲ 2022.3 ~ 항저우 아시안게임 복싱 국가대표팀 감독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남자 조정 국가대표팀 코치 신은철 동문 (체육학과 06학번)

Q. 조정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또, 스포츠 지도자를 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A. 고등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로 인해 서울체육고등학교를 알게 됐습니다. 그 후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조정팀 감독님 눈에 띄게 돼서 시작했어요. 지도자 생활은 5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계속하던 중 어느 순간 운동이 싫어졌습니다. 그 시점에 중학교 선수들과 같이 운동할 시기가 있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때 그 선수들에게 운동을 알려주다가 흥미를 느껴 스포츠 지도자를 희망하게 됐습니다. 선수 시절 처음에 시작했을 때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도자 선생님들의 계속된 조언으로 방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특히 지도자님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코치님들이 제게 해준 것처럼 저도 학생들에게 힘을 주고 싶어 스포츠 지도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Q. 선수로서의 실력이 지도 능력과 연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A. 충분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수 때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신체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도 능력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목에 대한 이해도나 숙련도에 따라 충분히 있다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도자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2급 전문 지도자 자격증을 먼저 땀습니다. 그리고 조정 특성상 물 위에서 하기에 수상 보트 면허증도 취득했어요. 또, 인련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한국체육대학교 변원태 전 교수님 밑에서 1년 정도 조교 생활을 이어 나가다 조정 지도자가 됐어요. 필수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인명 구조 자격증도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Q. 조정이 이번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이 굉장히 유력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선수들을 지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원래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3파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남아 쪽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국가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대회를 나가면서 경험을 쌓고 비교해 보며 선수들의 기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요. 선수들이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자신의 이미지는 어떤 코치라고 생각하시나요?

A. 저는 친구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는데요. 가르침에 있어 강압적인 부분도 있어 카리스마와 따뜻한 중간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상이 있고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 이런 괴리감이 생겼어요. 코치는 나아가갈 방향과 정확한 지도를 해줌으로써 선수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선수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는 멘토가 돼야 해요.

“지도자는 선수의 거울이다”



Q. 지도자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A. 처음 지도자를 시작했을 때 성적에 대한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수보다 더 긴장했어요. 선수들의 긴장을 풀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선수들이 제 긴장을 풀어주는 상황이 온 거죠. 이때 제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대회를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 후 선수들 앞에서는 긴장한 티를 안 내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담소도 나누고 선수들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배려하게 되었어요.

Q.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A. ‘지도자는 선수의 거울이다’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모든 행동이 선수수범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에너지를 표출하면 선수들도 에너지를 받아들이며 열심히 하는 거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선수들보다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은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열심히 지도하다 보면 선수들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현역 선수 뿐만 아니라 지금 운동하지 않는 선수들에게도 연락이 와요. 그럴 때 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Q. 지도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나요?

A.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지도자를 시작하는 선수들이 많

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지도자가 선수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지도자로서 가르칠 것이 없어 학생들의 신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준비를 탄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은철 (36세)

- ▲ 1987. 07. 04. 서울특별시
- ▲ 2006. 3 한국체대 입학
- ▲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조정 남자 싱글 스컬 금메달
- ▲ 2019. 1 ~ 2021. 9 한국체육대학교 조정부 조교
- ▲ 2022 ~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조정 국가대표팀 코치

기자생각

지도자가 있기에 선수도 빛난다

지도자의 필수요소는 열정과 준비다. 그리고 선수와 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최고의 멘토가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 스포츠 지도자를 꿈꾸는 학생은 ‘지속적인 공부’와 ‘선수와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을 핵심으로 생각하자. 이를 갖춘 지도자가 된다면 선수들이 빛날 수 있다.

스포츠 지도자는 선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훗날 지도자가 될 학우들을 응원한다. 선수 시절 느낀 고충을 잊지 않고 우리나라 체육계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체육 산업 흥행의 첫 번째 관문, 스포츠 행정

체계적인 스포츠 행정 업무가 없다면 경기장 안팎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스포츠 행정이 스포츠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현재 우리나라 스포츠 행정의 현 위치는 어디일까? 스포츠 행정이 그 중요성을 심사숙고하며 흥행의 관문을 돌파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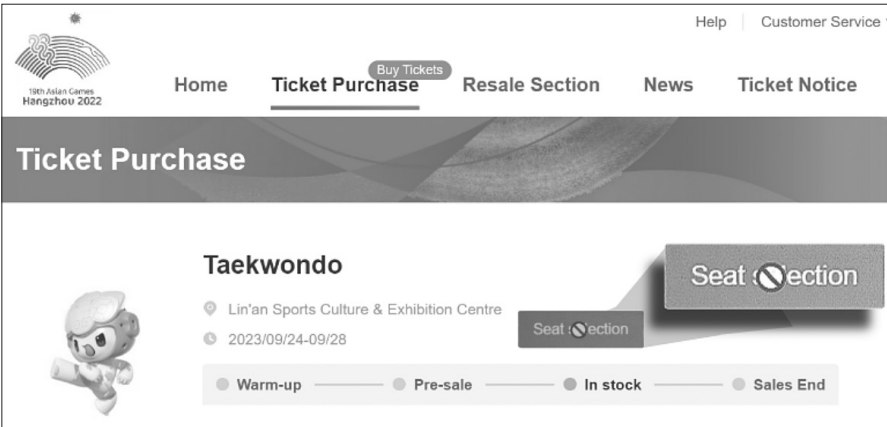
박정윤 기자 junung88@naver.com

스포츠 행정의 임무

스포츠 행정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세한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 행정의 의미를 사전에 검색해 봐도 ‘국가 통치 작용 가운데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국가 작용’라고 정의한다. 심지어 독일의 공법학자 포르스트호프(Forsthoff,E.)는 “행정은 묘사할 수는 있으나 정의할 수는 없다.”라며 행정의 범위가 넓고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스포츠 행정은 광범위한 영역 속 어떤 역할을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스포츠산업학과 김병식 교수를 만났다. 김 교수는 “스포츠 행정의 범위를 딱 잘라 말하기보다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이란 수익 창출과 마케팅이 중요한 경영과 달리 공적인 영역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라며 스포츠 행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미와 반대로 스포츠 행정의

이미지는 아직도 경직되어 있고 한 방향 소통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적극적인 마케팅과 소통을 추구하는 경영과 달리 비교적 집행의 성격이 강한 행정 특성 때문일까? 이 의문에 김 교수는 “행정도 마케팅을 통한 소통,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스포츠 행정은 조례와 규정에 준수해 대응한다는 점, 특정 대상이 아닌 국민이라는 절대다수를 위한 만족이라는 특성들이 스포츠 행정을 경직된 이미지로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은 조례와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개인 맞춤으로 대응을 해줄 수 없다. 이것에 소비자들은 답답하다고 느끼지만, 예전에 비해 스포츠 행정도 민원이 누적되거나 변화가 필요하다면 반영하려고 한다.”라며 스포츠 행정의 현 상황을 밝혔다.

메가 스포츠 직관의 진입장벽



항저우 아시안게임 공식 사이트 티켓 구매 창이다. 자국민이 아닌 관람객에게는 티켓 판매 서비스를 제한한다.

출처: 항저우 아시안게임 공식 사이트

우리나라 선수들의 해외 진출, 비인기 종목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는 선수의 등장, E-스포츠 등의 새로운 종목의 채택으로 인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직관을 돕는 네이버 카페 ‘모두의 직관’을 운영하는 정종찬 매니저를 만나 카페 내 스포츠에 대한 인기를 물어보았다. 정 매니저는 “해외로 이적해 활약하는 축구 선수, 메가 스포츠 대회마다 새롭게 채택되는 종목 등의 이유로 실시간 중계하는 경기를 관람하고 직관을 계획하는 카페 회원들이 늘어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스포츠 문화가 변화하는 시대에서 팬들을 위한 스포츠 행정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관을 계획하고 있는 정 매니저에게 현재 상황을 물어보았다. 정 매니저는 “국제축구연맹(FIFA)은 카타르 월드컵 전용 사이트를 준비하여 관광 정보와 교통편을 정리한 지도를 제공했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 사이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며 경기 일정표와 경기장 위치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한다고 토로했다. 직접 항저우 아시안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가장 잘 보이는 메뉴 카테고리에는 일정표만 정리해 놓았을 뿐 관람객을 위한 정보는 없었다. 계속해서 “카

타르 월드컵에서는 자체 매표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게 표를 구했는데,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행사를 통해 일부 종목만 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심지어 “8월 31일을 마지막으로 대행사를 통한 구매는 끝났고, 이제 개인적으로 VPN 우회를 통해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라며 복잡한 티켓 구매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행사의 티켓 구매가 중단된 후 정 매니저의 카페 회원 중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가기 위해 티켓 구매를 시도하다가 너무 어려운 절차 때문에 직관을 포기한 회원도 꽤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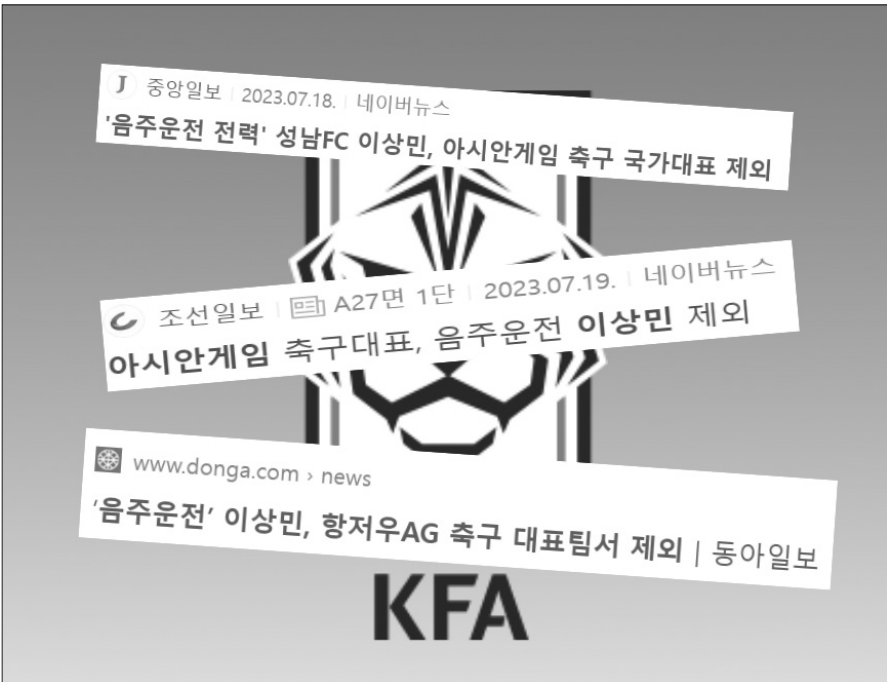
왜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티켓 구매가 유난히 어려울까? 자세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매표 대행사 한진 관광에 대행을 멈춘 이유와 메가 스포츠 이벤트마다 매표 방식이 다른 이유를 문의했다. 한진관광은 “해당 국가와 조직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라며 문의한 질문마다 추상적이고 동일한 답변을 받았다.

정 매니저는 “월드컵과 비교했을 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가 차이 나는 것이 체감된다. 실망스러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메가 스포츠 행사와 국가에는 다시 관람,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며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다.

스포츠 행정의 미래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충청권에서 열릴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와 같은 국제스포츠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두 대회 유치 및 개최는 우리나라 스포츠 행정력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스포츠 행정은 앞으로 개최될 국제스포츠 대회를 발판 삼아 더 비상할 수 있을까? ‘스포츠 행정및정책’ 과목을 강의하는 김화룡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대회를 원활히 진행하고 끝난 뒤에도 시설물 방치, 갑자기 줄어드는 수요 등의 문제점 발생을 막으려면 우선 행정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조건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타당도 분석과 대회 후에 남지질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을 예상해야 한다.”라며 현실적인 예산 확보,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이후에 생겨날 지역 스포츠 활성화, 끝나



국내 주요 언론사가 대한축구협회(KFA)의 국가대표 선발 행정 과실을 보도했다. 대한축구협회는 7월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상민(성남FC)을 국가대표로 선발하며 논란을 빚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7월 14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최종 선발 명단을 발표했다. 그런데 명단에 문제가 있었다. 음주운전처벌 이력으로 규정상 국가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는 수비수 이상민(성남FC)이 포함돼 있던 것이다. 심지어 이상민은 올해 8월 4일까지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지난 2021년부터 세 차례 연령별 대표팀에 발탁되어 출전했던 문제점이 함께 드러났다. 한국축구협회는 더불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의명단 제출 마감일인 15일 안에 시정하지 못했다. 대체 선수를 발탁할 수 있는지 확정 짓지 못한 것과 계속된 행정 과실로 축구 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18

과도기의 끝을 향해

국가와 조직위마다 다른 행정 수준은 각국에서 기대에 부풀어 오는 스포츠 팬들의 불신을 거트린다. 이는 악순환의 시발점으로, 추후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김 교수는 이를 끊어내기 위해 스포츠 행정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를 설명했다. “대회의 조직과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선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믿음직한 행정은 신뢰를 통해 관광객은 물론 스포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수환이 일어난 것.”이라며 신뢰를 강조했다. 이어 “신뢰를 바탕으로 경기 규정을 준수하는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도핑, 비리와 같은 장애물들은 경기 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다시 신뢰를 깨는 행위다.”라며 행정으로 부패를 척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스포츠 행정은 경영과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 수요에 맞추어 스포츠 행정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김 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분석 기술은 스포츠에 활용된다. 그렇다면 스포츠 행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디지털 기기와 뉴미디어를 통해 경기장에서 실시간으로 관람객을 위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는 관람객과의 즉각적인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관람 이상의 재미를 느끼게 한다.”라고 하며 새롭게 강구할 점을 제시했다.

행정의 업무 특성상 경영과 달리 바뀌는



양지인 학우(체육22 사격, 좌측 상단)가 진천선수촌 사진 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시대와 새로운 수요에 발맞춰 나가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행정에도 필요하다. 현재 스포츠 행정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대한체육회 스포츠마케팅사업단 진병준 마케팅 담당관을 만났다. 진 담당관은 “대한체육회는 사진 부스 기업과 협약을 맺어 선수 프로필 촬영과 진천선수촌에 사진 부스를 설치했다. 또 팀코리아 테마가 적용된 사진틀로 국가대표 선수들

은 보람찬 훈련, 함께 운동하는 추억을 편리하게 사진으로 남기고 있다고 한다. 이 사진들은 진천선수촌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 부스 매장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팀코리아 사진 틀로 사진을 찍으면 국가대표 선수를 응원하고 함께하는 접점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한 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소통을 통한 협업과 스포츠 마케팅 행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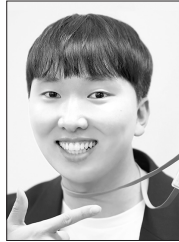
기자생각

스포츠 행정에게 질타격려를!

스포츠 행정은 어렵다. 조례와 법이 기초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만족시키기 힘들다. 하지만 조례와 소통의 두 갈래 길 앞에 멈춰 서서 안주해서도 안 된다. 그 이유는 과도기를 겪는 스포츠 행정에는 스포츠를 응원하는 팬과 무한한 가능성을 훈련하는 선수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례와 법을 지켜 반복하지 않는 신뢰와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소통을 조율하여 화음을 내야 한다. 그 화음을 위해 우리가 변화할 스포츠 행정을 지켜보며 질타격려(叱咤激勵, 큰소리로 꾸짖기도 하고, 격려하여 분발하게 함)를 시작하자.

편집장레터

축제 뒤에 감춰진 것들



한지용 편집장

관중들의 함성과 화려한 폭죽이 곧 중국 항저우를 뒤덮을 것이다. 환희의 순간, 우리 대학 선수의 입상 소식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역을 뒤흔들 기쁜 소식으로 한동안 한국 체육계는 북적댈 예정이다. 그러나 와중에도 한국체대생이 있어서는 안 될 사명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이 곧 우리나라 스포츠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사실 말이다. 앞으로의 체육 발전은 마땅히 한국체대생이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스포츠의 화려한 순간에 속아 앞에 놓인 과제를 놓쳐선 안 된다.

우리 대학의 교육목적을 살펴보면 ‘뛰어난 경기력 연마’라 적혀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이를 위해 체육특기자를 선발하고 양성한다. 뛰어난 경기력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실적이다. 특히, 올림픽·아시안게임과 같은 국제무대 성적이 중요하다. 국가는 우리 대학 선수들의 경기력 연마를 돕고자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체육학과 학우들에 국한된 이야기다. 경기지도학과나 생활체육대학 소속으로 출전하는 학우들에 대한 지원은 눈에 띄게 미미하다. 같은 체육특기자 학생이지만, 체육학과와 경기지도학과와 금전적 지원의 차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아시안 패러게임에 출전하는 특수체육교육과 장애인 선수들은 학교의 도움이 없음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들도 엄연

한 ‘우리대학 우리선수’다. 체육학과가 아니란 이유로 이들의 ‘뛰어난 경기력 연마’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쏟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궁극적인 우리 대학의 존재 이유는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이다. 학교에게 묻고 싶다. 체육학과 학생만을 지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는 행동인가? 체육학과 선수들은 분명 우리 대학을 빛내는 귀중한 존재지만, 그들만이 한국체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대학이 ‘체육과 스포츠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한국체대 모든 구성원이 합심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같은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한국체대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두고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선수들의 부상 관리 및 의료 지원은 프로스포츠, 실업팀, 국가대표 선수만이 영위할 수 있는 특권과 같다. 여전히 능력에 따른 지원이 팽배하다. 소수의 엘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행정 분야는 절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명단 발표와 관련한 사태는 우리나라 스포츠 행정력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등록해선 안 될 선수를 명단에 올렸다. 그것도 세 차례나. 이들이 얼마나 안일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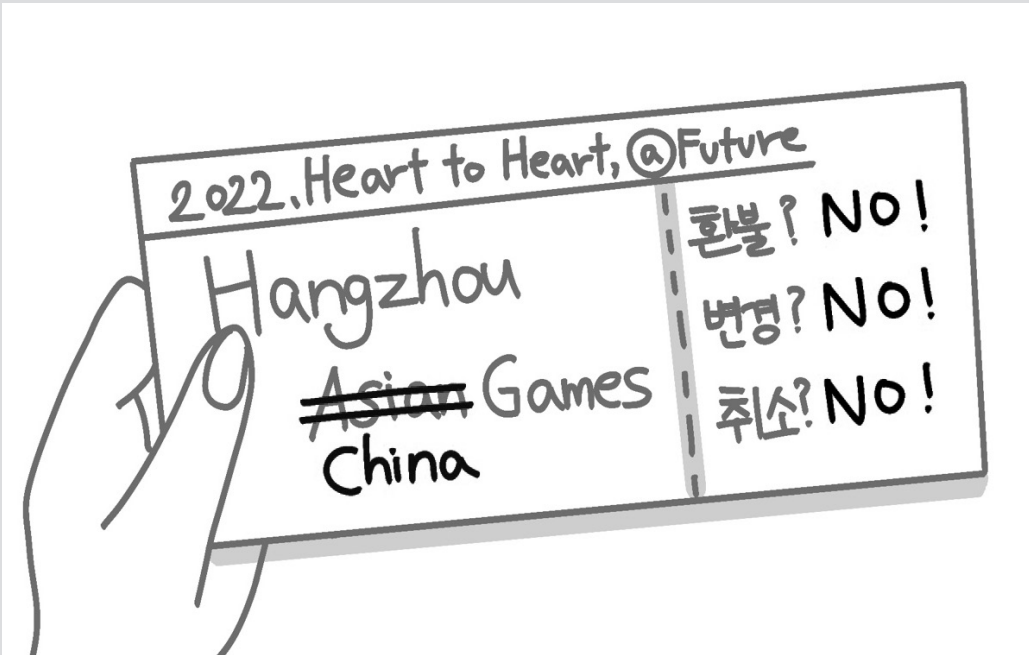
스포츠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이번 아시안게임의 개최지는 중국이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공식 홈페이지에서 입장권 판매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인이 아니면 접속할 수 없다. 한국 사람들은 오

직 대행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당 대행사가 모든 티켓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일부 종목만 판매한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아시안게임 관중석을 독점하고자 하는 배타적인 태도다. 그러나 직관을 원하는 국민들을 위해 한국 스포츠 공공 기관이 아시안 게임 조직위에 항의 메시지 하나 제대로 던졌을지 의문이다.

별개로 중국의 만행은 이것뿐이 아니다. 그들은 종목조차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꾼다. 새로운 종목들이 아시안게임에 등장하면서 스포츠 팬들에게 불거리를 선사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넘게 공식 종목으로 인정받은 볼링을 제외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헤아리기 어렵다. 중국이 볼링의 약세라 그런 것인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올림픽·아시안게임과 같은 대회에서 개최국의 종목 선정은 언제나 화두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중국에 유리한 종목은 도입하고, 불리한 종목을 제외하는 비겁한 행보가 눈에 띄게 환하다.

이처럼 항저우 아시안게임 뒷면에는 여러 문제점이 서려 있다. 한국체육대학보 275호는 이를 폭폭 눌러 담았다. 축제를 기대하며 즐기는 것도 좋지만, 신문을 펼친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느꼈으면 좋겠다. 우리 대학 학생은 체육인으로서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힘쓸 의무가 있지 않은가. 화려함과 재미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스포츠의 발전과 유지를 위해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기 위한 비판의식을 함양하자.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성장을 위해 옳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체육인’이 되자. 한국체육대학보는 여러분이 가는 길에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으로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만평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나 모든 티켓을 중국인에게만 판매하고 있다. 다른 국가 스포츠 팬들은 대행사를 통해 한정된 수량만 구매할 수 있다. 아시아인들을 위한 축제가 돼야 할 아시안게임이 중국인만을 위한 대회로 변질되고 있다. 또한, 티켓은 한 번 구입하면, 환불, 명의 변경, 취소 모두 불가하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기자석 I



송현일 부장기자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맞이해 특집호를 발간한다. 열두 면 모두 한국체대 선수들의 땀으로 적었다. 기획 의도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물에 기쁜 한편, 한 가지 우려도 있다. ‘지키지 않은 책무’에 관한 얘기다. 한국체육대학보는 교내 유일의 신문사로서 학생사회의 명암(明暗)을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행보는 마치 ‘불나방’ 같다. 본교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겠다는 핑계로 빚만 쫓고 있지 않은가? 진실은 늘 어둡다. 이를 환하게 밝히는 게 학보사의 역할임에도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언론 기구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 자리를 빌려 세 가지 다짐을 선사한다.

첫째, 앞으로도 옐로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을 지양할 것이다. 바야흐로 뉴미디어 시대다. 시청각 매체가 대중을 장악하고 있다. 종이 신문의 위기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같은

비망록(備忘錄)

거함(巨艦)도 높은 파도를 맞닥뜨렸다. 그보다 작은 ‘한국체육대학보 호’는 고민한다. 학우들이 알고 싶어 할 내용을 보도할 것인가. 혹은 학우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보도할 것인가. 필사즉생(必死則生)이라 했다. 정면 돌파를 택한다. 후자가 우리의 살길이다. 항해선은 앞뒤로 길고 너비가 좁다. 고파(高波)가 두려워 옆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뒤집히거나 난파한다. 줄지 않는 가판대 부수가 대수인가? 아니다. 언론은 공정한 사회의 구심점이다. 우리는 학생에게 비판적 사고 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당장 살고자 자극적 요소에 몰두하면 존재 이유를 잃는다. 그러면 영원히 죽는다.

둘째, 앞으로도 외부의 청탁, 회유, 통제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학보사 구성원이 아니라면 누구도 편집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한국체육대학보는 지난 시간 수많은 ‘요구’와 맞섰다. 경사를 다뤄 달라는 부탁부터 민감한 내용이니 기사에 신지 말라는 압박까지. 이는 전부 언론이 지켜야 할 중립의 태도를 해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개가 된 신문사는 광고 회사와 다를 바 없다. 기자들이 수호하는 제1 가치는 언제나 ‘학우들의 믿음’이다. “애네가 말하는 건 항상 옳아.” 이 한

마디를 듣고자 오늘도 우리는 목줄을 채우려는 자와 사투(死鬪)를 벌인다.

셋째, 앞으로도 권력의 감시자로서 학생자치 실현에 앞장설 것이다. 왜 현대 사회가 ‘죽은 지 500년도 넘은 연산군의 만행’을 기억하는지 아는가? 사관(史官)이 그의 행적을 조선왕조실록에 낱낱이 기재했기 때문이다. 학보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기록한다. 그것이 업적이든 치부든 표적을 가리지 않는다. 개인의 욕심이 학우의 권리를 해치는 순간 주저 없이 펜을 든다. 마르지 않는 잉크를 쓰는 탓에 한 번 신문에 새긴 내용은 평생 역사에 남는다. 끝없는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의 이념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언론기관으로서 우리가 짊어진 사명(使命)이다.

대학 언론인으로서 늘 고민한다. 학보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름대로 답을 내리고 이곳에 적었다. 사회로 나갈 날이 머지않았다. 지금의 신념이 불변(不變)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끊임없이 현실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것이다. 그때마다 꺼내 볼 비망록(備忘錄)이 필요하다. 찰나의 생각을 붙잡아 영원으로 만들고자 한국체육대학보 275호에 고뇌의 흔적을 남긴다.

기자석 II

이동관 위원장이 보장할 언론 자유란



박서진 부장기자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장악해 서도 안 되는 영역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장악에 앞장섰다는 의혹이 다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8월 1일 첫 출근 당시 남긴 말이다. 이전까지 보여준 행보와 다른 발언에 놀랐다. 역사는 그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필자 역시 이 위원장에게 공감한다. 언론은 장악돼선 안 된다. 언론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갑작스런 그의 옳은 말에 필자는 얇은 추측을 했다. ‘사과’라고 생각하면서 ‘배’라고 말이 잘못 나온 건 아닐까, 하고. 그의 과거 행적은 어느 대학 학보사 기자의 어설픈 의심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한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당시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조선일보 문제 보도’라는 정부 비판적 기사를 분류한 문건을 관리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이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 대변인으로 활동한 시기(2008년 2월~2009년 8월)와 겹친다. 또 2009년 9월 7일자 홍보수석실 문건에는 “우리 정부의 재해 대응체제의 총체적 부실의 한 단면을 드러냈 습니다.”에서 “정부와 군, 지자체 모두 눈을 닫았습니다.”로 MBN 앵커의 멘트를 순화 조치했다는 내용이 있다. ‘우연히도’ 이동관 당시 대변인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이러한 우연은 언론 장악, 통제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지상파와 보도 채널의 방송을 승인·허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문보다 방송이 더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방통위의 역할은 더욱 과거보다 더욱 중요하다. 이동관 위원장이 그런 위원회를 진두지휘하게 된 것이다. “무책임한 가짜 뉴스, 특정 진영 주장 전달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언론 자유를 누리는 언론은 책임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언론인이자 위원장으로서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말보다 행동이 진실에 가깝다고들 하지 않나. 그의 발언은 과거 행적을 뚝 떼서 선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역사에 남은 그의 행보 덕분에 방통위의 앞으로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

언론 장악은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시끄러워서는 성공할 수 없고 시끄러워서도 안 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동관이 누군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학보사 기자들도 그렇다. 언론에 꽤나 관심있어 교내서 기자로 활동하는 이들도 모른다. 언론 장악은 과거보다 더 쉬워졌다. 그리고 더 조용해졌다. 그렇기에 이동관 후보자 지명의 의미가 큰 것이고 위원장 자리에 앉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다.

그의 행보에 좌절하는 이도 있다. 혹자는 관심이 없으며 누군가는 즐겁게 보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언론은 사회를, 시대를 보는 창이다. 언론이 장악되면 눈이 가려지는 것과 같다. 나의 눈을 누가 가리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눈을 같은 편이 가리든, 적이 가리든 위험해지는 것은 같다. 그러니 모두가 눈을 똑바로 뜨고 언론을 통제하려 드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통위의 고삐를 잡은 사람이다. 대한민국 언론의 미래가 그 손안에 있다. 이동관 위원장의 지금 발언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의 과거 행적을 되새기며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자. 20여 년 언론계에 종사한 그가 위원장으로 어떻게 언론 자유를 보장할지를.

한국체육대학보

http://news.knsu.ac.kr

발행인 | 문원재 기 획 | 김세준 편집장 | 한지용

기 자 | 박소영·박서진·송현일·원지호·강현석·박정운·이선우·백준훈·송차호·이세은·김채람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한국체육대학교 메타버스 도서관 4층 학보사

전 화 | (02)410-6556

사령

[수습기자 임명]

김채람(운동건강관리 22)

[주간 사임]

허진석 교수(산학협력단)

한국체육대학교 학보사

제4회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 토크아보기

제4회 아시안 패러게임이 다음 달 22일 중국 항저우에서 개막한다. 본 대회도 다가올 제19회 아시안게임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대회에 앞서 장애인 스포츠의 A to Z와 경기 관전 포인트, 마지막으로 선수들의 각오까지 함께 살펴보자.

강현석 기자 fcx000@naver.com

교수님이 들려주는 패러게임 이야기



우리 대학 홍석만 교수가 제13회 베이징 하계패럴림픽 남자육상 800M T53 결승전에서 피니시라인을 통과한 뒤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아시안 패러게임은 아시안게임에 비해 조금 생소할 수 있다. 장애인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적을뿐더러 비장애인 종목과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스포츠는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2004 아테네 패럴림픽 육상 100m, 200m 금메달리스트인 특수체육교육과 홍석만 특임교수는 “장애인 스포츠는 재활을 목적으로 출발해 지금은 하나의 ‘스포츠’로서 자리매

김한 분야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스포츠는 비장애인 스포츠와는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비장애인 스포츠는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분리돼 있다면, 장애인 스포츠는 생활체육 위에 전문체육이 존재합니다. 이는 생활체육 참여자들이 전문체육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받는 경향이 짙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스포츠를 이해하기 위해선 새로

운 시각이 필요하다. 홍 교수는 “얼마나 알고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해설자는 경기를 해설할 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시를 묻자 “선수의 장애 등급이나 선수 휠체어에는 어떤 공기 역학적 성질이 있으며,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갔을 때 더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동시에 “일반 스포츠처럼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대중들의 관점에서 스포츠 과학이란 비장애인 체육에서 더 많이 다뤄지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일례로 하지 절단 장애인 선수의 의족이 있습니다. 의족은 선수마다 모양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 신체의 무게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육상 선수의 의족은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보다 더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장애인 선수들보다는 기록이 덜 나옵니다. 이렇듯 장애인 체육에는 과학적 요소가 많으며,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흥미를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라며 장애인 스포츠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대회를 앞둔 심정



윤지유(좌, 특수체육교육 19), 장준윤(우, 특수체육교육 23) 두 학우가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학교 선수들의 준비 과정은 어떻게? 어려움은 없는지, 어떤 심정인지 알아보자. 장준윤 학우는 “국제대회 경험은 다섯 번 정도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편은 아니지만 패러게임을 앞두고 여전히 떨리고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라며 대회를 앞둔 심정을 밝혔다. 이어, “아직 100% 기량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작년에 운동을 오래 쉬었던 적이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점차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중입니다.”라고 대회 준비 과정을 말했다. 또한 “중국 음식의 향이 강하다 보니 밥이나 컵라면을 챙겨갈 생각입니다. 경기 일정과 같은 부분은 문제없이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라며 현지 적응 계획을 말했다.

이종구 학우는 훈련 중 약간의 어려움이 있음을 전했다. “아무래도 몸을 계속 쓰다 보니 근육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염증 수치가 계속 높아져 훈련할 때 트랙을 돌 때 경사를 오르는 느낌이 들어 힘이 많이 듭니다.”라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큰 부상이 아니라 회복으로 해결될 문제이기에 큰 걱정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지유 학우(특수체육교육 19)는 “2016 리우 패럴림픽과 2021 도쿄 패럴림픽, 2022 장애인탁구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 대회 및 큰 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따로 긴장하거나 부담을 가지고 있진 않고 평소대로 임하자는 생각으로 준비 중입니다.”라며 많은 경험을 앞세워, 준비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말했다.

출전 선수들의 각오는 어떻게? 여러 국제 대회 경험이 있으나 아시안게임은 모두 처음이다. 이종구 학우는 “첫 아시안게임인 만큼 개인적으로 이번 대회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상 없이 준비했던 것 모두 발휘해 기록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윤지유 학우는 “그동안 철저히 준비한 만큼 가감 없이 제 기량을 발휘하고 왔으면 합니다. 또한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대회를 앞둔 각오를 밝혔다. 장준윤 학우는 “남은 기간 부상 없이 준비해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발전이 필요한 장애인 체육 관심도

우리 대학 학우들이 아시안 패러게임에 출전하지만 학교 측의 관심과 지원은 미비하다. 홍 교수도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아직은 많습니다. 특수체육교육과 소속 학생 선수들이 외부 소속 팀에서는 ‘선수’ 신분일지 몰라도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의 좋은 훈련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장애인 학생들의 편의에 맞게 이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다소 있습니다.”라고 아

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것보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우선이다. 제지원 학우(특수체육교육 19)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으며, 세부 종목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저희 학우들뿐 아니라 체육인들에게 장애인 체육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보거나 감상했을 때 비로소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강조했다. 이어 홍 교수는 “특수체육 분야에 바라는 점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직까진 장애가 ‘다른’ 것이 아닌 ‘틀린’ 것이라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묶여 있는 감이 있는데 그 벽이 허물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선수들이 주는 팁! 관전 포인트



이종구 학우(특수체육교육 22)가 경기가 끝난 후 숨을 돌리고 있다.

선수들이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수영 종목에 출전하는 장준윤 학우(특수체육교육 23)는 “장애 유형과 등급에 따라 그들이 경쟁하는 구도나 한계에 도전하는 박진감을 느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수영 종목의 경우 선수별 영법이 나 기술에 집중해 감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라고 말했다. 육상 선수 이종구 학우(특수체육교육 22)는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경기를 관람하실 때 속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장거리 종목인 800m 경기부터는 자리싸움을 하는 치열한 장면을 보다 사실감 있게 관람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며 학우들의 관람 이해를 도왔다.

당신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 '나는 국가대표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인지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다.

이어 홍 교수는 “선수 개개인이 자신만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전반의 장기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당장 앞둔 대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회가 마무리되기까지 다치지 말고 후회 없는 경기 펼치고 오길 바랍니다.”라고 항저우 패러게임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특수체육교육과 제25대 학생회장 제지원 학우도 “항저우 아시안 패러게임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특수체육교육과 학우들인 만큼, 평소 많이 마주치고 지켜봐 왔습니다. 전부 알긴 어렵겠지만 선수들의 노력과

의지를 알기에 잘할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2023년 1학기 '지체 장애인 스포츠' 수업에서 다 같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 선수촌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사용하는 선수촌으로, 같이 수업을 들은 우리 학과 선수들의 상반신 사진과 종목이 적혀있는 현수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국가를 대표해 경기를 뛰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그 만큼 당신들 스스로 멋있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학우들은 언제나 반겨주고 응원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자생각 한국체육대학교가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

특수체육교육과 소속 선수들은 체육학과 선수들과 달리 학교 외부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한다. 학교 내에서는 ‘선수’ 신분이 아닌 것이다. 이들을 위해 학교에서 도움을 주는 기관은 장애학습지원센터뿐이다. 그들 역시 한국체대 구성원으로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누릴 권리가 있다.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에 대한 학교 측의 지원을 물었을 때 ‘당연히’ 없다는 대답과 그 현실이 안타까웠다. 글로벌 체육대학을 지향하는 학교답게 학교내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성장할 수 있길 소망한다.